

Welcome to Korean temple!

문사수회의 외국어 통역봉사

바라밀현장

5일 오후 서울 봉은사 보우전. 주지 원혜 스님이 한국 불교에 대해 설명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관계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누구나 알 만한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언어의 벽이 가로 막는다면 문제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을 찾아왔을 때가 바로 그렇다.

이 때 외국어에 능통한 불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Sakyamuni Buddha said 2500 years ago that everything is dependent upon each other. We call this Dependent origination."

원혜 스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진행된 유창한 외국어 통역. 통역자들의 노력 덕분에 외국인들은 그제야 1,600년 역사의 한국 불교의 맛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거린다.

이날 프로그램은 '제1회 주한외교사절 및

상사 임원부인 초청 한국 전통사찰 체험 행사.' 이 행사에 참여한 푸른 눈의 외국인들은 사찰 참배, 발우공양, 다도 시연, 선식 강연, 사찰 음식 체험 등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 부인 로빈슨 씨는 "마늘 같은 향신료로 사찰 음식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발우공양의 소감을 밝혔다. 네델란드인 에이박 씨도 "한국 절을 지나면서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방문하기는 처음"이라며 "통역 봉사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하며 한국 불교를 낯선 이방인들에게 알린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봉은사 문사수회(회장 이태길) 회원들이다. 한국 불교를 알고 싶은 외국인들의 귀와 입이 되는 문사수회는 봉은사의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모임이다. 80여 회원 대부분이 몇 년 이상의 외국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0여 명은 국제 포교사로도 활약 중이다.



◇문사수회원들이 5일 봉은사에서 열린 사찰 체험 행사에서 외국인들의 발우공양을 돕고 있다.

문사수회는 현재 봉은사 내에 외국인 안내 부스를 자원봉사로 상설 운영 중이다. 또 문사수회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불교를 배우는 모임도 갖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화경 영어 공부 모임, 비디오 법문 시청 후 토론 등 프로그램도 시작할 계획이다.

외국어로 불교를 공부하고 통역 봉사를 하는 문사수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0년 10월. 서울에서 제 3차 아셈 정상회담이 열릴 무렵이다. 봉은사 신도들은 한국 불교를 알릴 절

호의 기회로 삼자고 서원을 세우고 6월부터 회화 및 사찰 안내 교육을 자체 실시했다.

문사수회의 진가는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 유감없이 발휘했다. 봉은사는 40여 일 동안 계속된 월드컵 행사 기간 내내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발우공양, 참선, 예불, 다도 체험, 인경, 불화그리기, 연등 만들기 등 1박 2일 코스로 진행된 봉은사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불교 문화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대부분 외국생활 경험...템플스테이서 활약

영어 뿐 아니라 일어·중국어 모임도 가져

무 이정희(50) 보살. 이 보살은 "문사수회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思), 나의 삶을 수정함으로써(修) 정도에 이루자는 뜻을 갖고 있다"며 "봉은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그들의 입과 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BRD와 IPU 총회 등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한 이 보살은 "외국인들은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려려 일부 한국인들이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불교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인 이정희 총무는 올해 전통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청년 불자들의 국제조직인 WFBY 한국 지부의 해외 활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국제캠프 등의 진행을 도울 생각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생은 결국 하루 종일 사상을 당하고 육도를 오르내리려 하는 존재이며,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해탈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현재며 순간인 참나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형태라 할 수 있고, 수행 역시 현 활나의 윤회하는 마음을 바로 닦고 바로 보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전생의 나는 어떤 존재였으며 내 생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구태여 알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윤회에 대한 바른 소견이라 할 수 있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애나 메이시 (上)

평생 불교의사회화에 헌신

"점점 커지는 동심원 속에서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온 세상에 닿아있네. 완성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원에 나는 전 존재를 바친다네."
(<넓어지는 동심원> 중에서)

불교생태학의 토대를 일군 미국의 조애나 메이시(74·Joanna Macy)는 수행자이자 심층 생태학자, 사회운동가로서 현재도 정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저서전 <넓어지는 동심원(Widening Circles)>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얻은 하나의 마음을 온 세게로 회향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저술과 강연을 쉬지 않고 있다.

1929년 LA에서 태어난 메이시는 대학시절 다양한 사회운동을 경험한 탓으로 평생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64년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난민을 돕던 그녀는 티베트불교를 접하게 된

립한 일이다.(현재는 자원위원)

이 해 메이시는 시라쿠스 대학에서 연기론과 심층생태학을 집목한 논문 <연기법과 시스템이론>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불교생명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로부터 그는 전세계를 무대로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강연과 워크숍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듬해 그는 아리아라프네 박사가 이끄는 사르보다야 운동을 배우기 위해 포드재단의 기금을 받아 스리랑카로 떠난다. 1년간의 현장 체험은 <다르마의 개발 : 사르보다야 운동에서 보이는 자원으로서의 종교>란 역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조애나메이시

특정 종파 구애 없는

수행으로 깨달음 회향

생명운동 강조 위한

'모든 존재들 의회' 제창

다. 돌보이는 인품과 덕행으로 불교의 정수를 전해주던 프레다 베디(Freda Bedi)가 첫 번째 스승이었다.

이 무렵 그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나'라고 집착하던 것이 본래 없다는 '무아(無我)'를 체험하게 된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다. 나 자신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늘 존재한다고 믿었던 나라는 것이 인습이고 허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넓어지는 동심원> 중에서)

메이시는 이후 탁났한 스님으로부터 선불교를 배웠으며, 티베트의 초갈 린포체(Choegal Rinpoche)로부터 밀교를 사사받는 등 특정 종파에 상관없이 다양한 수행을 접하면서, 그 깨달음을 사회로 회향하기 시작한다. 메이시의 불교사회운동의 서막은 78년 아이 셋 전사와 함께 불교평화회의회를 설립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기 위한 메이시의 노력은 일명 '사회적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의 의회'를 제창하게 했다. 이를 테면 인간이 산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 산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과 산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용과 파괴를 해왔던 인간의 행위를 반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을 강조한 우화적 이론이었다.

메이시는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 세상을 '나의 연인' 또는 '나 자신'으로 보자고 역설한다. 이 세상을 선악의 대결장으로 보고, 자신이 선(善)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한 오만불손한 공격성에 쉽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계속)

김재경 기자



문사수회 이정희 총무 한국인들 불교가치 몰라 안타까워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사찰 등 불교 유적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단체인 문사수회의 총

무 이정희(50) 보살. 이 보살은 "문사수회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思), 나의 삶을 수정함으로써(修) 정도에 이루자는 뜻을 갖고 있다"며 "봉은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소개하고 그들의 입과 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BRD와 IPU 총회 등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한 이 보살은 "외국인들은 불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려려 일부 한국인들이 불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불교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인 이정희 총무는 올해 전통 사찰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청년 불자들의 국제조직인 WFBY 한국 지부의 해외 활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국제캠프 등의 진행을 도울 생각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생은 결국 하루 종일 사상을 당하고 육도를 오르내리려 하는 존재이며,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해탈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현재며 순간인 참나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형태라 할 수 있고, 수행 역시 현 활나의 윤회하는 마음을 바로 닦고 바로 보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전생의 나는 어떤 존재였으며 내 생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구태여 알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윤회에 대한 바른 소견이라 할 수 있다. 적연(유마선원장)

종종 사람들로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보면 윤회를 바로 알게 된다고 대답한다.

알다시피 윤회설은 불교의 내세 관이다.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윤회에 관한 연구는 동양보다 서양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 서양의 많은 정신 분석가들은 인간에게는 현생 이전에 수많은 전생의 삶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수 천 권도 넘는 증명할 수 있는 실례와 보고서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윤회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윤회를 꼭 몸을 받고 태어나기 전이나 몸을 버리고 죽은 후의 일

마음비추기

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찾아 보자는 말이다. <구사론>에 따르면 중생이 나고 죽는 과정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한다. 이것을 4유(有)라고 하는데 첫째,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生有) 사

는 동안을 분유(本有), 죽는 순간을 사유(死有),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동안의 기간을 중유(中有)라고 한다. 그리고 중생은 이 과정을 통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이라는 육도를 자신이 지은 업의 결

어 일어나는 순간을 '생유', 그 생각이 머무는 기간을 '분유',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을 '사유', 그 생각이 소멸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사이를 '중유'로 볼 수 있다. 6도 역시 한 마음이 괴로우면 지

이 순간을 보면 윤회를 안다

과에 따라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네 단계와 여섯 갈래의 길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현재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 마음이

욕, 한 마음이 욕심을 내면 아귀,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축생, 한 마음이 착하면 인간, 한 마음이 싸우면 아수라, 한 마음이 기쁘면 천상이다. 이렇게 알면 윤회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大韓佛教全國山岳人聯合會 임원 초빙 공고

조직 확대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신심 깊은 인사(남, 녀)를 임원으로 초빙합니다.

●부총재 : 0명 ●이사 : 00명

1. 연 령
본 연합회는 1997년 6월 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宋月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창립대법회를 봉행한 바 있고, 동년 10월 3일 개천절에 경북 안동에 있는 약산 흥은사(본회 지정수행도량)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총발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본 연합회는 종단과 종파,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성자순례를 통한 산림법회,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 불교문화 창달과 보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순수 산행 불교단체입니다.

3. 연합회 구성
顧問
김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 당연직) 諮問委員 교계인론사 대표 위촉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名譽總裁 손헌수 (초대~2대 총재, 대현그룹 회장)
이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總裁 김정길 ((주) 삼원개발 회장)
이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副總裁 한계수 外 수명
서돈각 (대한불교진흥회 이사장) 監事 이돈중
박봉식 (前 서울대학교 총장, 現 금강불교대학교 총장) 理事 경봉수 外 수명
송석구 (前 동국대학교 총장) 事務總長 김대원
정인익 (前 연합회 총재, (주)남양회장)

- 支會 및 단위 산악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회와 40여 단위 산악회 활동 중
- 현 정회원: 약 3만여명 * 각 지역에서 활동중인 불교산악회 및 일반불자 가입 환영
* 향후 수십여만명의 청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산도회관 4층 전화 02)735-1108, 011-9739-9505. 팩스 733-7278

大韓佛教全國山岳人聯合會 總裁 金正吉



안양불교대학 학생모집

권 제 4기 경전반 권

(6개월과정. 금강경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입학일시 5월 2일 오후 2시

접수마감 4월 30일까지

- 강의 교수 : 뜻으로 읽는 金剛經 저자 송찬우
- 송찬우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수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에서 강의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주요 특강 교수진

- 지관 큰스님 - 전 해인사 주지, 동국대 총장, 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세 민 스님 - 해인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 법 산 스님 - 동국대 정각원장
- 현 각 스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 태 원 스님 - 중앙승가대 교수
- 현 호 스님 - 안양불교대학장, 지장선원 주지
- 권기종 교수 - 동국대 전사회교육원장
- 최 영 준 - 불교방송 진행자, 개그맨, 가수

대한불교
조 계 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입학문의 : (031)444-5935, 5936